

학교탐방

“희망을 주는 학교,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

인흥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한 식구 같은 분위기 ... ‘미래창조, 꿈을 키우는 인흥교육’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에 위치한 인흥초등학교(교장 한성원)는 1940년 11월 15일 인흥공립심상소학교로 설립하여 개교한 이래 총 1,56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한성원 교장

현재 전교생 71명과 교직원 18명이 한 식구 같은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흥초교는 ‘미래 창조, 꿈을 키우는 인흥교육’을 교육의 목적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어린이 △기초·기본교육을 통해 자기 스스로 탐구하는 어린이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어린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생활하는 어린이를 교육목표로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흥초등학교는 학생들의 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청림 착한나무 가꾸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림 착한나무’란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예절을 나무

에 비유해 매월마다 예절 덕목을 선정 실천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또한 한가족 한마을 생일잔치도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뿐 아니라 교직원들의 생일도 구성원들이 같이 모여 축하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텃밭 가꾸기, 행복도시락 등 다양한 특색교육을 운영해 학생들과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동기 강화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교사들은 다양한 장학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양질의 수업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1, 2학년은 중심으로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년을 대상으로 골프교실, 태권도, 플룻, 미술, 오키리나, 사물놀이, 클레이 아트, 바이올린, 독서논술, 한자지도 등 12개의 다양한 부서활동을 학부모님의 부담이 없도록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흥초등학교는 교직원 및 지역사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고성지역 학교



인흥초등학교 전경

들이 겪고 있는 학생감소 현상과는 다르게 한때 폐교위기에 처했으나 지금은 이웃한 속초지역에서의 전입생이 증가하고 있다.

인흥초등학교 한성원 교장은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를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을 키울 수 있고 학생들과 더불어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성원 교장은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며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며, 또한 교사들이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18>

고성팔경(高城八景)⑥ 건봉사(乾鳳寺) VII

금강산 건봉사의 운파당·목우당대사 비명(碑銘)

건봉사가 중건된 이후 역대 고승들의 부도(浮屠)와 비(碑)가 건봉사 초입에 부도군(浮屠群) 주변에 설치되어 있다. 부도는 스님의 사리나 유골을 넣은 원당(願堂) 또는 석종 모양의 석조물을 일컫는 말로 승탑(僧塔)이라 부르기도 하며 비명(碑銘)은 ‘스님의 행적을 기록한 비문’이다. 이곳에 운파당·목우당대사 두 분의 비명(碑銘)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운파당대사비명(雲波堂大師碑銘) = 조선 중기의 승려 운파당(雲波堂, 청안淸眼, 1650-1717)의 행적을 기록한 碑文이며, 청안(淸眼)의 제자 쌍식(雙式)의 부탁을 받고 이의현(李宜顯, 1669-1745)이 비문을 지었다. 비문에 의하면 청안(淸眼)은 자(字)는 법장(法藏)이며 호(號)는 운파(雲波)이다. 그의 집안은 정선전씨(旌善全氏)인데 고려 때 간성(杆城)으로 이주하였고 어머니는 엄씨(嚴氏)이다. 13살에 금강산 유점사(楡岾寺) 대적암(大寂庵)에서 출가한 후 사명대사(泗溟大師, 惟政)의 3대 제자인 허곡당(虛谷堂) 나백(懶白)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그 후 운문사(雲門寺) 등 경상도 지역에서 참선(參禪) 수행하다 금강산을 거쳐 고향의 건봉사에 들어와 1717년(숙종 43)에 입적(入寂)하였다. 문도들이 다비(茶毗) 후 그의 사리를 석종(石鐘)에 안치한 후 그 비문을 이의현(李宜顯)에게 구한 것이다.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문화재청, 1995」에 따르면 귀부, 비신,

이수로 구성되어 있는 2면비이다. 귀부는 240cm×168cm×61cm의 크기로 귀두는 등과 수평을 이루고 있다. 등에는 6각형의 2중 귀갑문이 조각되었다. 비좌는 93cm×42cm×8cm 크기의 장방형이다. 비신은 180cm×78cm×28cm의 크기로 상면에 16cm 크기의 전서(篆書)로 『운파대사비명(雲波大師碑銘)』이라고 새겨져 있다. 나머지 비문의 내용은 『건봉사본말사적』에 소개되고 있으며 『규장각28097』1매(枚)가 탁본 179.4×93.2cm 보관되어 있다. 이수는 135cm×58cm×180cm의 크기로, 전면에 2마리의 용이 구름사이를 날고 있다. 측면에는 장방형의 액내에 불륨이 강한 도깨비가 양각되어 있는데, 주변에는 구름이 묘사되어 있다. 날카로운 뿔, 타원형의 얼굴, 눈썹, 눈, 코, 날카로운 이빨과 수염이 표현되어 있다. 이수의 상단에는 각형 1단 받침 위에 화로형 받침대를 놓았다. 받침의 중단에는 유(U)자 형이 상하 교차되고 있고, 상면에는 원내(圓內)에는 앞과 뒤로 『日』자외 『月』범자(梵字)가 양각되어 있다. 비석의 전체 높이는 4.13m로 1730년(영조 6)에 건립되었다.

목양당대선사영안비명(牧羊堂大禪師靈眼碑銘) = 조선 중기의 승려 목양당(牧羊堂, 영안靈眼, 1631-1724)의 행적을 기록한 碑文이다. 영안(靈眼)이 죽은 다음 해에 그의 제자 의영(義英)의 부탁을 받고 간성군수 이덕수(李德壽, 1673-

1744)가 비문(碑文)을 지었다. 영안(靈眼)의 행적은 명확하지 않은데? 이 비에 의하면 그는 함경도 영흥부(永興府) 북촌(北村) 출신으로 김씨(金氏)이며 집안은 대대로 유학(儒學)을 업(業)으로 삼았다고 한다. 8살에 출가하였고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의 제자인 회경당(回警堂) 홍변(洪辨) 장로(長老)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1724년(景宗 4)에 그가 건봉사에 들어왔을 때는 별다른 특징이 없이 미타염불(彌陀念佛)만을 행하였으므로 사찰의 승려들이 그를 무시하였지만 이해 겨울 그가 입적 후 다비식(茶毗式)과 49제(祭) 저녁에서 100제 까지 이적이 일어났고? 동자승의 꿈에 산신이 나타나 영안의 사리를 수습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그의 정골과 사리 2매를 수습하여 건봉사 동쪽 언덕에 탑을 건립하였다. 그런데 1712년(숙종 38)에 전라도 광양의 옥룡사(玉龍寺)에서 간행한 『高麗國光州嶺驪縣絳白鷄山玉龍寺制誦洞眞大師寶雲之塔并序』 <古 1723-3>의 말미에 기록된 대선사(大禪師)의 명단에 보이는 영안(靈眼)은 동일 인물로 생각된다.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문화재청, 1995」에 따르면 비좌, 비신, 이수를 구비하고 있는 비석이다. 비좌는 126cm×87cm×20cm 크기의 장방형으로 치



운파당대사비명(사진 왼쪽)과 목양당대선사영안비명.

석이 고르지 못하다. 비신은 183cm×81cm×34cm 크기의 2면비이다. 자경 8cm 크기의 전서(篆書)로 『목양당대선사영안비명(牧羊堂大禪師靈眼碑銘)』이라고 새겨져 있다. 비문의 내용은 『건봉사본말사적』에 소개되고 있으며 『규장각28095』1매(枚)가 탁본 173×77.5cm 보관되어 있다. 이수는 화형(花形)이며 전면에는 구름과 2마리의 용을 조각하고 있고, 뒷면에는 운문(雲紋)이 표현되고 있다. 비석 전체의 높이는 2.8m로 1731년(영조 7)에 건립되었다.



김 광 섭

- 향토사학자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
- 논문 : <선유담의 고찰>, <간성의 만경대와 누정 고찰>